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5/06/16~2025/06/22]

2025.06.23

[로봇] 부품과 오토메이트 2025

- 본격화되는 로봇티즈와 LG전자의 협력.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협력
- 부품에서 찾는 기회. LG이노텍의 피규어 향 카메라 모듈 납품
- 6월 24~27일, 독일 뮌헨에서 오토메티카 개최. 국내 로봇 기업도 다수 참여

[방산] 2%→5%

- 현대로템은 반에크 ETF 이슈, 한화시스템은 노스롭 그루먼과 레이더 협력 속 강세
-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나토 정상회담 불참. 사우디에서는 한-사우디 군사협력위 개최
- 미국의 이란 타격 현실화. 중동 정세는 시계 제로

[항공] LCC와 FSC의 단거리 운항 현황

- 보잉은 취청. 에어버스는 파리 에어쇼에서 무려 11조원 수주 달성
- 델타항공에 이어, 산은과 네이버도 한진칼 우군으로
- 에어부산도 7월말에 터미널 2로 이전. 통합 대한항공 속도

[조선] 일본의 조선 부활에 대한 꿈

- 일본의 조선업 부활에 대한 꿈. 1조엔 투하해 국영 조선소 설립 추진
- 중동 충돌 속 해상 운임 급등 추세. 사태 장기화 속 영향 주시
- 한화의 호주 오스탈 인수는 9월까지 결론. HD현대는 미국 ECO와 상선 협력



Weekly Keyword

부품과 오토메이트 2025

한국 로봇 기업들은 부품 분야에서 기회 확보 중. LG 이노텍이 피규어 AI 향 카메라 모듈 공급 소식을 전함. 보스턴다이내믹스 공급망 관련 이슈도 지속 부각. 이번 주는 오토메이트 이벤트 주목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85)

[부품과 오토메이트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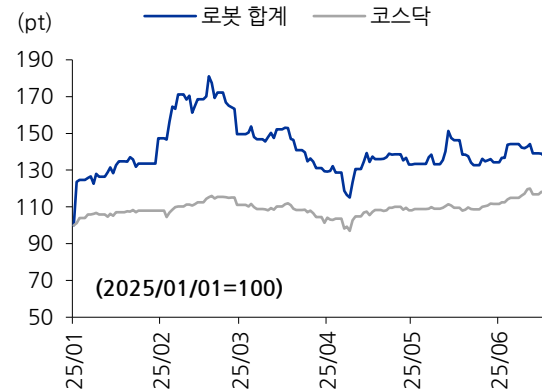
- 한국 로봇은 부품 분야에서 기회를 잡아가는 중. (1) 미-중 기술 경쟁 속 중국 부품 공급망 전환 가능성, (2) 국내 로봇 기업 및 해외 투자 기업의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에 주목
- LG이노텍의 미국 휴머노이드 기업 피규어 AI 향 카메라 모듈 공급 소식이 알려짐. 피규어 AI는 LG 이노텍이 과거 투자한 기업. 부품 공급까지 협력 확대. 동사 휴머노이드는 6개의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고, 향후 4년간 10만대 로봇 공급 예정. LG이노텍은 5월에는 보스턴다이내믹스와도 비전 센싱 시스템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 휴머노이드 시장이 아직 개화 초기 단계만큼 단기간에 유의미한 실적 반영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참여 가능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의의. 이와 더불어 현대차그룹의 보스턴다이내믹스 상장 이전, 실적 확보와 이를 위한 양상 체제 확립 속 부품 공급망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 유효할 것
- 이번 주에는 독일 뮌헨에서 유럽 최대 자동화 전시회인 오토메이트가 개최. 로봇 분야 첨단 기술 공개 및 국내 참여 기업들 이슈에 주목

Key Chart: 오토메이트 2025 참석 기업(상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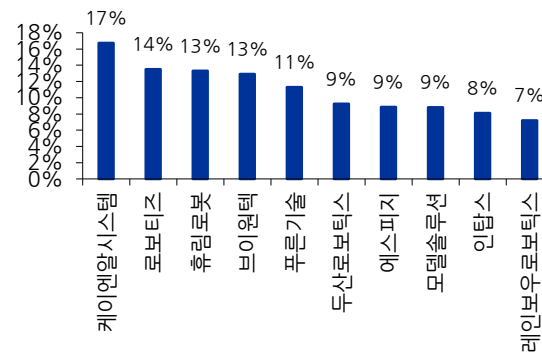
기업명	분야	부스 현황
두산로보틱스	산업용 로봇	단독부스
하이젠알앤엠	액츄에이터	단독부스
로보티즈	액츄에이터	한국로봇협회관(KAR)
에스피지	감속기	한국로봇협회관(KAR)
알에스오토메이션	제어기/센서	한국로봇협회관(KAR)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iverse

로봇 주요 뉴스(06/16~06/22)

[서비스 로봇]

- 엔젤로보틱스, 웨어러블 로봇 '엔젤슈트 H10' 출시
- 뉴빌리티, 산업단지 식음료 로봇배달 상용화
- 삼성, 올해 상반기 예정이었던 '볼리' 출시 하반기로
- 부산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도입 추진

[기타(정책/부품/SW)]

- 로보티즈, LG전자와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
- LG이노텍, 美 피규어AI에 로봇용 카메라 모듈 첫 공급
- LG CNS, 美 '스킬드AI'와 전략적 협력 및 투자 단행
- 24~27일 독일서 최대 자동화 전시회 오토메이트가 개최
- 옴디아 "K-휴머노이드 연합, 1조원 예산 적어"
- 테슬로, 60억원 시리즈A 투자 유치
- 에이딘로보틱스, 'AI 팩토리 사업' 낙점
- 로보티즈, 휴머노이드 로봇 R&D-글로벌 협력 강화 속도
- 알에스오토메이션, K-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 조성 본격화

[Global]

- 손정의, 미국 애리조나에 1조달러 규모 AI-로봇단지 구상
- 엔비디아와 폭스콘이 제조 공정에 휴머노이드 전력 도입
- 테슬라, "옵티머스 손 디자인 도용" 로봇 스타트업 고소
- TSMC 회장 "휴머노이드 산업, 반도체 매출에 기여 시작"
- 中 푸두로보틱스, 서비스 로봇 10만 대 출하. 수출 80%
- 로봇 인재 구하는 中 휴머노이드 채용 공고 409% 폭증
- 게코 로보틱스, 시리즈 D 투자 유치. 기업가치 12억달러
- 핵사곤 산업용 휴머노이드 'AEON' 출시



Weekly Keyword

2%→5%

이번주 24~25일 나토 정상회담 예정.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목표 5%까지 상향될 전망. 달성 시기는 2035년. 한국은 초청에도 국내 현안 및 중동 정세 고려하여 불참 결정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3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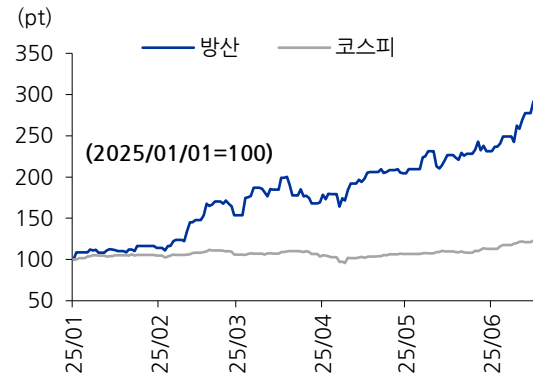
- 드디어, 이번주 24일~25일에 나토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 이미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목표는 5%(직접 군사비 3.5%, 간접 군사비 1.5%)에 잠정 합의한 상태. 목표 달성 시점은 2035년으로 예상되며, 2029년에 목표 재검토 이루어질 예정. 독일 등 주요국과 동유럽은 찬성 기조이나, 스페인에서는 일부 반대 목소리도 존재
- 정상회담의 기대 요인은 명확한 목표치와 달성 시기를 정함으로서 기대감이 숫자로 가시성을 더해볼 수 있다는 것. 리스크 요인은, 나토 국가간 이견 발생. 목표 상향 위해서는 가맹국 32개국의 만장일치가 필요. 이미 외교관 레벨에서는 32개국 합의의 달성. 이번에 초청받았으나 불참을 선언한 한국의 신정부 선택의 여파에도 주시 필요. 중동 정세 및 국내 현안 고려해 불참. 일본 이시바 총리는 4년 연속 참석 예정

Key Chart: NATO 국방비 지출 목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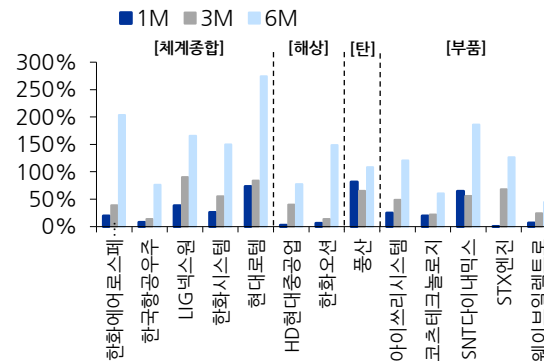
구분	내용
목표치 변경	GDP 대비 2%→5%
달성 시기	2035년
목표 재검토 시기	2029년
찬성 표명 국가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반대 표명 국가	스페인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방산 주요 뉴스(06/16~06/22)

[수주/계약]

- RFHIC, LG넥스원과 476억 규모 방산 계약
- 이집트, 한화에어로 '천무' 구매 세부 조건 검토

[기업별 이슈]

- KAI, 록히드마틴과 전략적 협력분야 확대 MOU 체결
- KAI, 인도네시아에 KT-1B 조립라인 구축 제안
- 넥스원-한화시스템, 말레이 해군 호위함 현대화 사업 참여
- 현대로템, 반에크 디펜스 UCITS ETF의 투자 대상에 포함
- 한화시스템, 노스롭그루먼과 대공 방어 시스템 협력
- 한화시스템-밀코어, AESA 탑재 무인기 개발 협력
- 방탄·방호소재 분야 삼양컴텍이 코스닥 시장 상장 추진

[기타]

- 나, 나토 정상회의 불참. 중동 전환이 긴박, 국내 현안 우선
- 사우디서 '제3차 한-사우디 군사협력위원회' 개최
- 방진회,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서 방산설명회 개최
- 내달 체코와 10년 만에 방산군수공동위
- 수은, 바르샤바 사무소 신설. 방산 수주 지원 본격화
- 폴란드, 美와 FA-50 무장 협상 나서

[글로벌]

- 미국 B-2 폭격기로 GBU-57 이란에 첫 실전투하
- EU, 방위사업 허가 '60일 패스트트랙' 도입. 규제 간소화
- 이스라엘, 장거리 요격 미사일 '애로우' 부족
- 튀르키예 칸 전투기, 인도네시아 이어 사우디 수출 임박
- 나토 국방비 5% 목표에 스페인 제외 요청
- 日英伊, 차기전투기 개발 JV 엣지워킹 설립

안녕하세요 항공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LCC와 FSC의 단거리 운항 현황

LCC와 FSC의 단거리 노선에서의 전략 차이가 나타나는 중. LCC는 일본 지방발 운항을 강화하고, FSC는 무비자 입국 이후 여객 수요 호조 보이는 중국 노선 중심 전략 펼치는 중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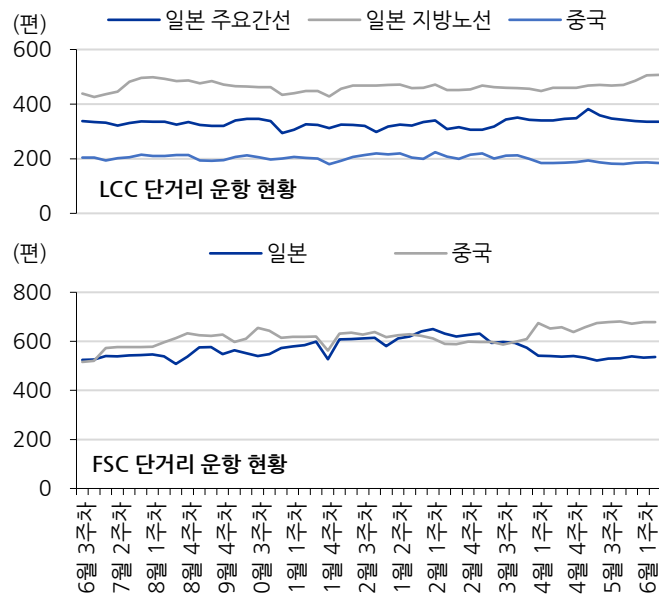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3)

[LCC와 FSC의 단거리 운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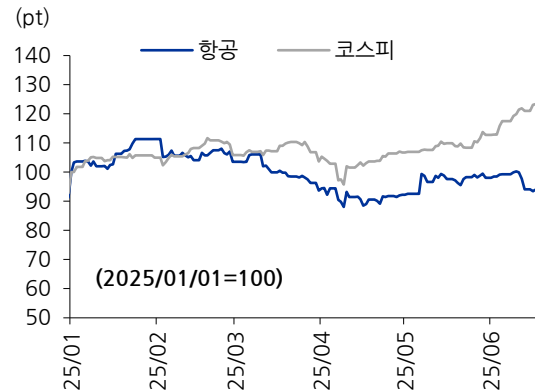
- 고수익 노선인 단거리 노선의 운항 현황을 확인해보면, LCC는 일본 지방 노선을 강화하고, FSC는 무비자 입국 이후 여객 수요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노선을 강화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Key Chart: LCC 및 FSC 단거리 운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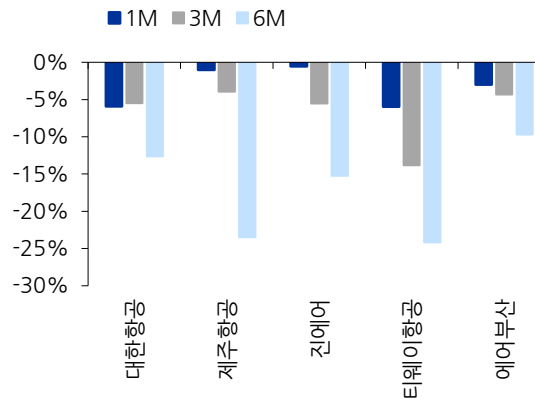


자료: 에어포탈,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6/16~06/22)

[여객/화물]

- 제주항공, 2분기 스퍼트. 1~5월 여객수 LCC 1위 탈환
- 中 무비자 입국 효과. 5월 누적 한국발 여행객 24% 급증
- 인도네시아 대규모 화산 폭발로 발리행 항공편 대거 취소
- SAS, 인천~코펜하겐 직항 개설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글로벌 항공사 순위 '7위' 첫 등극
- 진에어, 운항훈련시설에 자기자본 43% 규모 투자
- 티웨이항공 24일 임시주총. 경영진 교체 추진
- 티웨이항공, 유럽 크로아티아 특가 프로모션 진행
- 에어부산, 7월 29일 인천공항 T2로 이전
- 이스타, 영국 스카이트랙스 첫 '한국 최고 저비용항공사'
- 파라타항공, 오는 7~8월 AOC 발급 목표로 운항 준비 중

[기타]

- 산은, 한진칼 지분 10.58% 통합 항공사 출범 후 매각 예정
- 네이버, 한진칼과 '전략적 제휴'로 우군 역할
- 7월 유류할증료 3년 9개월만 최저치 기록
- 현대카드, 5월 해외 결제 3148억 원. 전월 대비 8.4%

[글로벌]

- 보잉 위기 속 에어버스 파리 에어쇼서 11조원 수주
- 美유럽 항공사 중동 항공편 중단 속출
- "트럼프 싫어" 여행객 급감에 유럽 항공사들 울상
- 인도 "에어인디아 추락 동일 기종에 중대 결함 없어"
- 비엿젯항공, A321neo 100대 구매 계약 체결



Weekly Keyword

일본의 조선 부활에 대한 꿈

일본이 계속해서 조선업 부활에 대한 꿈을 그리는 중. 이번에는 국영 조선소 설립을 추진. 단기간에 한국 조선에 위협이 될 가능성은 낮으나, 지속 주시 필요한 이슈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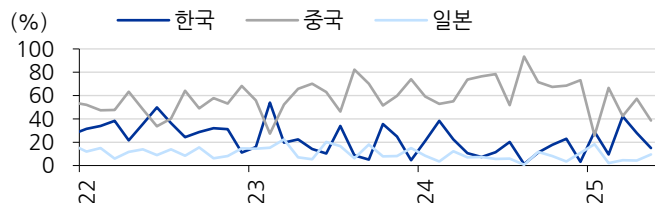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3)

[일본의 조선 부활에 대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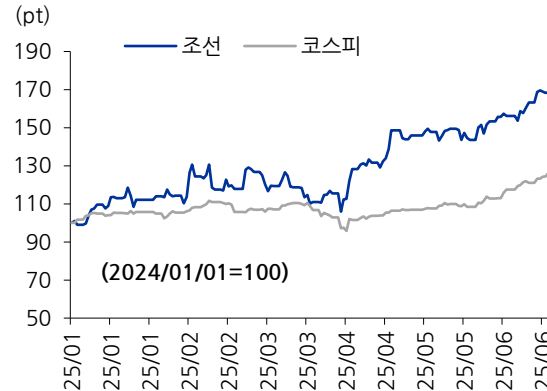
- 일본이 조선업 부활 위한 정책 패키지 검토 착수. 구체적인 지원책과 실행 일정, 민간 투자 규모 등 로드맵을 올 가을까지 수립. 민간 1조엔 투자 예상. 설비투자 기금 신설도 검토. 핵심은 국립 도크 구상으로, 국가가 직접 조선소 신설/재건하고 기존 조선설비 업그레이드를 추진
- 조선소 신설시 500~800억엔 소요. 도크 굴착 및 대형 크레인 설치 등. 국가가 건설 비용 부담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 및 감가비 부담 줄고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 기대된다는 주장. 미국과의 협력 염두하여 국내 산업 기반 정비 나서는 것으로 판단. 일본도 미 행정부와 관세협상 카드로 조선분야 협력을 제안 중이었음
-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하는 상황으로 단기간 내 한국 조선에 위협하기는 쉽지 않을 것. 다만, 최근 미국 쇄빙선 건조 관심 표명 및 미국과 조선 활성화 공동기금 조성 추진, 일본 조선 3사의 수소운반선 양산 협력 등 조선 분야의 영향력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지속 관찰되는 점은 주시 필요. 일본 조선공업회는 '30년 이후 차세대 연료선 세계 M/S 1위, 전체 선박 M/S 20% 획득 목표 언급

Key Chart: 10% 내외의 일본의 조선 수주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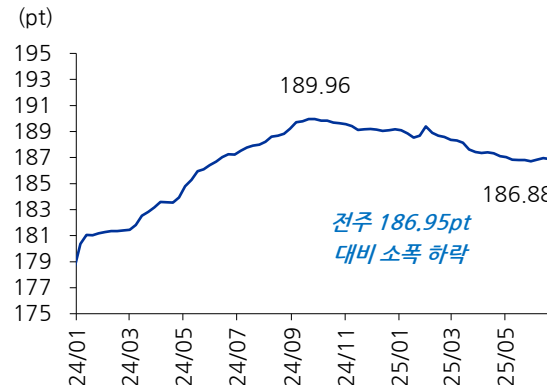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6/16~06/22)

[상선/해양]

- HD현대중공업, '3400억원' 초대형 가스운반선 2척 수주
- TEN, VLCC 2척 신규 발주 협의 한국 조선 3사와 진행중
- 한화오션, 브라질 Petrobras의 FPSO P-86 입찰 참여
- 美日, '272조원' LNG 계약에 韓 조선업계 기대감

[특수선]

- 호주 재무장관 "한화그룹 오스탈 인수 9월까지 결론"
- HD현대중, 디젤 잠수함 '윤봉길함' 창정비 조기 인도

[기타]

- HD현대, 美 조선사 ECO와 상선 건조 파트너십 체결
- HD현대중 부유식 SMR 모듈화가 美 ABS 개념 승인
- HD현대,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 앞둬
- 삼성중, 러시아 조선소에 4.8조 계약 해지 및 손해 청구
- 한화 필리조선소 건조' 해저암반설치선 7월 진수

[글로벌]

- 日 1조 엔 기금으로 조선업 재건. '국영 조선소' 설립 추진
- 美 '존스법' 폐지 법안 발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
-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해상 운임 급등
- 중동 충돌로 사우디-일본 VLGC 운임 1년래 최고치 기록
- 중국, 한화오션 고객사로부터 LNG운반선 4척 수주
- Dynacom, 中 New Times에 수에즈막스 6척 추가 발주
- 中 국영조선사 R&D 투자, 韓 1위 추월
- 말레이시아 해군, 다목적 지원선 2척 2030년까지 도입
- EU 2028년부터 러 가스 '영구 퇴출'. 연 35조원 규모
- 일부 해운사, '원유 동맥' 호르무즈 해협 우회 움직임